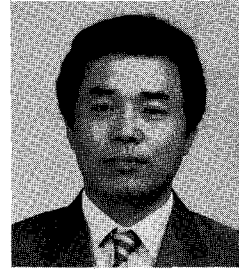


닭 질병 예방 종합대책 방안



김 창 섭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과 수의사무관

1. 기본방향

2000년대의 정부의 가축방역 정책은 선진국 형태의 방역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가축방역 전반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방식을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하고 닭의 경우 정부는 농가 개별단위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직접 이행하기가 어려운 「농장 또는 도축장 혈청검사」, 「종계장 검진 및 살처분」, 「수송차량 소독 등 이동간의 차단방역」, 「예방약 개발·보급」, 「우수종계장의 인증」, 「수출입 검역」을 중점으로 실시하고 「뉴캐슬병 예방접종」이나 「추백리 자율검진」,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를 적발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과태료 조치 등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닭 질병중 뉴캐슬병에 대하여는 동 질병의 조기 근절차원에서 지난 1997년부

터 시작한 부화장에 대한 분무예방약 공급을 근절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2.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

1) 사업비 지원 및 방역실시 추진

○ 닭 질병 예방주사는 1999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부화장에 뉴캐슬병 분무용 예방약 3억 마리분(15억원)을 공급하여 초생추에 분무접종토록 할 계획이며, 철저한 예방접종을 위해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원대상을 자동분무기가 설치된 부화장으로 국한하고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예방접종대상과 예방약 공병의 확인절차를 강화토록 하였다. 뉴캐슬병을 제외한 다른 질병은 축주가 자율적으로 접종토록 할 것이다.

○ 종계장의 추백리 검진은 1차적으로 종계장

소유주가 자체검진을 한 것에 대하여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확인물량 129천건에 소요되는 진단액 구입비 등 23백만원을 지원하여 자체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종계장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화하고 확인검사 결과 양성계군이 1%미만인 종계장에 대하여는 축주의 자율검진시 도태한 종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와 수의과대학 등 민간 병성감정기관의 혈청조사(산란저하증 등 7종)와 병성감정(마이코플라스마 등 10종)용 진단액을 144백만원의 예산을 투자, 수의과 학검역원에서 생산토록 하고 실시재료비 87백만원을 가축위생시험소에 지원하여 닭도 축장 출하닭과 농가가 의뢰한 가검물의 검사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혈청조사 결과에 따른 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권장 등 방역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다.
- 작년말부터 경기, 전북, 경북지역에서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 가금인플루엔자(약병원성)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 종계장을 조기에 색출하고자 전국 종계장을 대상으로 수의과학검역원이 주체가 되어 혈청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닭공동방역사업단 12개소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공방단 운영실적에 따라 20백만원 이하의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여 운영에 활성

화를 기하도록 하겠다.

- 수의과학검역원이 주체가 되어 우수한 예방약을 개발하여 동물약품제조업체에 기술을 전수토록 하고 특히, 가금티푸스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의 예방약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유통중인 예방약의 수거검사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1997년도부터 지원하여 왔던 닭 도축장에 대한 수송차량 세척·소독시설사업은 새로이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 금년부터는 사업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설치 및 가동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닭도축장 60개소중 작년말까지 시설을 설치한 곳은 15개소에 불과하여 당초 사업목적인 차단방역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 닭도축장 HACCP 적용 확대 등

- 2000. 7~2003. 7까지 닭 도축장 규모별로 년

차적 HACCP 적용을 의무화 하고 HACCP 시설자금을 개소당 350백만원씩 15개소(소, 돼지도축장 포함)에 용자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HACCP 컨설팅비용 105백만원을 투자하여 업체 실정에 맞는 HACCP제도를 도입토록 할 것이다.

- 계열화 업체를 우선으로 닭도축과정에서 생체·해체검사 결과(질병 및 관리 요인)를 계열농가에 통보하여 농가가 적절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3) 제도개선 추진

- 닭 도축장에 대한 수송차량 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운영을 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해 금년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할 것이며, 아울러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개정,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차량 세척·소독시설의 운영 의무화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 위생·방역관리 우수종계장 인증제도는 그동안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5개 종계장이 신청하여 2개의 종계장만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양계농가가 우수한 품종의 닭을 확보하여 경제적인 양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동 인증제의 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인 만큼, 인증기준의 폭을 다양화 하고 등급기준을 세분하여 다수의 종계장이 참여토록 하는 한편, 인증을 받은 종계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 종계장위생관리는 가축위생시험소의 정기검

사 실시를 강화하고 정기검사시 질병감염이 확인된 종계장은 등록을 취소하고 그 명단을 전문지에 게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 공동방역사업단운영은 민간단체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축협중앙회가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하여 왔으나 그 참여가 부진하여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민간단체를 지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훈령을 고시로 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 가축전염병 발생시 격리·역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금년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거 6월의 범위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지정한 기간내 사육제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는 농장폐쇄(사육가축은 전두수 살처분)조치를 강행토록 할 것이다. 특히, 돼지콜레라와 닭 뉴캐슬병의 근절은 우리 축산업 발전을 위한 최선의 과제라고 생각하여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농가와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의 처분은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방역조치를 잘하고 있는 선량한 이웃농가를 보호하고 나아가 양계산물의 수출기반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다.
- 수입개방화에 따른 종란, 종계, 양계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역도 선진국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 보장되는 침단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수입가금육에 대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검사, 신규 미생물과 중금속 검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수입검역이 종료된 초생추의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하여 해외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3) 교육·홍보

○ 금년도 교육·홍보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 법령과 고시 등 제규정을 중심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양계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양계농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금티푸스 생독예방약의 사용, 약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방역, 백세미의 방역방안 등에 대해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3. 대책추진에 따른 농가 당부사항

닭 질병의 방역상황은 정부와 양계단체의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들어 백세미에서 뉴캐슬병 발생의 증가와 가금티푸스의 전국적인 확산, 저혈당증의 발생확인 및 가금인플루엔자

의 확산조짐이 보이는 등 양계농가의 닭질병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 8월에 대한양계협회가 주축이 되어 학계, 관계, 양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생·방역위원회를 발족시켜 양계산업의 전반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은 정부의 방역정책 수립과 추진에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상기 위원회의 역할과 의견에 비중을 두고 당면한 현안사항을 하나씩 해결하여 양계농가의 닭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다만, 서두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농가 개별적인 방역은 정부의 지원에 기대하기보다는 농가별로 책임을 지고 추진해 줄 것을 농가에게 당부하며, 정부에서도 닭 질병 방역추진에 돼지콜레라근절대책의 추진강도와 버금가는 정책을 도입하여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양계**

Pfizer 한국화이자동물약품(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44번지 한국타이어B/D 5층
 ☎ 080-999-1945

새천년을 시작하는 한국화이자 동물약품(주)(대표이사 오효성)는 그간 한국대표로 일해오던 마이크 반 블로메스틴 사장이 지난 1999년 12월 31일부로 일본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오효성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한국화이자 동물약품의 경영을 맡게 되었다.

정직과 신뢰, 그리고 고객중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화이자 동물약품은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 향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류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사랑스런 애완동물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연간 2천억원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새로운 한국화이자 동물약품(주)는 대표이사 오효성, 축산팀(상무 김용팔, 영업부장 허상식), 애완동물팀(과장 서승원), 기술지원팀(차장 박영찬), 등록·허가·대관팀(부장 권동일)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신입사원으로 임형호(전남대수의과졸 예정), 성석재(충북대수의과졸 예정), 임종성(서울대수의과졸 예정)씨를 충원하여 조직원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갈 예정이다.